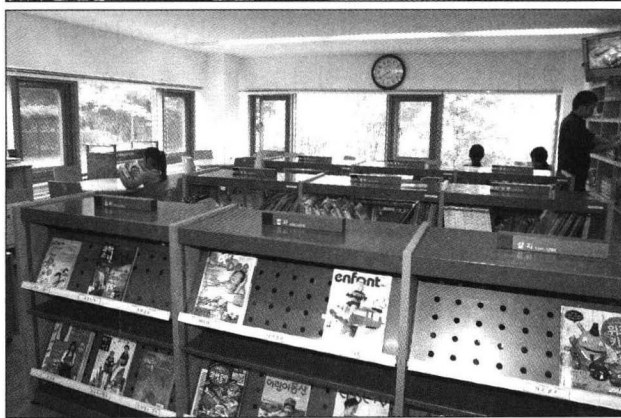


## 개인 기부 공공도서관

#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서대문 독립공원을 가로질러 언덕배기에 올라서면 너른 유리외 깔끔한 벽돌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 보인다. 고급 전시장을 연상케 하지만 몇 분간 지켜보면 무리를 이뤄 뛰노는 어린이들과 아이의 손을 잡고 드나드는 젊은 엄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이다.

“별이 된 딸의 이름이 소중한 빛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으로...”

입구 벽면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마음이 뭉클하다. 이곳은 외관뿐 아니라 태생도 남다르다. 국내 중견 의류 수출업체의 대표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딸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에 50억원을 기부해 지어졌다. 국내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 기부 건립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 9월 15일 개관 일주년을 맞은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던 서대문구에 새로운 지역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다. 또 지난 10월 1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한 ‘2006 한국건축문화 대상’에서 준공부문 우수상을 수상 하면서 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을 한 번 더 높였다.

서대문구립 이진아도서관을 이끄는 인력은 사서(관장 포함)팀 5인과 전자정보열람실 2인(전산직 파견포함)이다. 현재 장서 3만 5천권을 보유하고 이용 회원은 7천명을 넘어섰다.

위탁 경영을 담당한 서대문구도서관리공단이 개관 후 지난 일 년간 중점적으로 운영한 사업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다. 원래 ‘독립문 문화의 집’이라는 문화강좌 공간을 허물고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도서관 설계부터 열람 공간과 문화교육공간의 비율을 반으로 만들어 다

1 도서관 전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독립공원을 지나 ‘명천사길’ 가는 골목에 위치한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1층, 지상 4층 규모로 로비로 통하는 유리창은 햇빛과 그림자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전달한다.

2 열람실 공부방 이미지를 벗어버린 열린 자료 열람실. 내부 통로를 이용해 2~3층 서가 이동이 자유롭다.

3 어린이 서가 어린이 열람실과 모자 열람실로 구성. 특별한 구조는 아니지만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는 어린이 이용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아나 초등 저학년) 창의력과 호기심 위주의 도서를 구비했다. 교육도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한다는게 도서관 입장이다.

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적합하다. ‘오감체험 미술 놀이’, ‘매직팻, 신나는 체험영어’, ‘흥미진진 토요일’ 등 영유아, 아동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다. 특히 서대문구는 독립공원, 인왕산 등 입지여건을 활용 ‘생태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된 학습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서울시도시관리공단 도서관 팀장이자 이진아기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이정수 관장은 개관 후 첫 일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반 열람실(공부방)이 없고 모두 자료열람실로 꾸며 기존 도서관 획일성 타파에 일조한다는 생각이다. 또 전체 이용객 중 80% 이상을 어린이와 학부모가 차지한다.

“이제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도 규모는 작지만 주어진 조건을 장점화 해서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정보제공, 문화향유)을 인식시키

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관장에 따르면 학부모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 역시 학교, 학원 등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른 이곳 분위기에 적응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

인상적인 도서관 풍경 중 하나라면 입구에서 이용객을 맞이하는 안내 데스크다. 입, 퇴실만 관리하는 여느 도서관과 달리 유니폼을 차려입은 친절한 안내원이 내방객을 응대한다. 이용 편의를 돕는 도우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에 도서관측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근한 이미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민원발생, 궁금중이 한곳으로 모아지니 해결하기도 편하고 이용객들이 도서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귀띔한다. **☞**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INTERVIEW 이정수 관장



### ‘문화강좌 등으로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 ‘어린이 도서관의 특징도 살릴 터’

“개인기부 첫 사례이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작이 남달랐던 탓인지 외부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초기

에는 이용객보다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건물이 이쁘기도 하니까. 일년만에 내부적으로 안정적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년 도서관을 정비한 이정수 관장의 소감이다. 그는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이용객을 아우르는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강좌에는 영유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설 하는 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을 하고 있죠. 이용객 수는 어린이보다 낮지만 꾸준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관장은 문화강좌를 해 나가면서 도서관 인지도

를 높이고 이용 고객들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 인식 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개관 후 가장 큰 성과라면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줬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 출입을 어색해 하던 이용객들이 이제는 안내데스크에서 스스럼 없이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강좌 개설을 위한 설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근 지역에 어린이 들이 많기도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건물이 따뜻한 느낌이어서 그런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지만 어느 정도 특화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 이용객들에게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내년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정학습이 이뤄지는 노는 토요일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